

|오늘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29

통 권_제 234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8월 31일

함즐함울

www.pcltv.org

로템나무

진정한 승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2:14-15)

올림픽 여자 핸드볼 판정시비를 보면서 느꼈다.
좀 더 적극적인 이익제기를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내 삶 속에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
얼마든지 따지면 내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확평한 가운데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전략이다.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처준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이다.

주님!
늘 제게 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
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신앙의 경주자... 상을 받도록 달음질하는

아구 준결승

대한민국:일본
HIGHLIGHT



무더운 더위와 함께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던 8월
이었다. 성경에도 과연 올림픽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사도바울이 그 바쁜 선교 중에도 마라
톤을 관람한 흔적을 보게 된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
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
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신앙경주와 마라톤을 비교
하며 우리가 다 달리기 신앙선수들이라고 격려했다.
승리한 사람은 월계관을 쓰고 패한 사람은 노메달이
다. 단지 올림픽에서는 다른 사람과 겨루지만 신앙경
주에서는 경주대상이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사탄
에 미혹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의 욕심과 유
혹, 좌절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금메달, 지면 사
탄이 메달을 타게 된다. 상 받는자는 하나, 사탄 아니
면 나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금메달)을 탄다. 비록 도중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결
승까지 이 믿음 놓지 않으면 승리는 예약된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삶이다. 올림
픽 선수들은 모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뛰지만 또
하나 자기의 조국을 위해 죽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연
습하며 노력한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
요 신앙올림픽 선수들이라고 한다. 역대 금메달리스
트의 명단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스테반집

사, 다윗, 다니엘, 에스더, 마리아, 롯,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등 기라성 같은 메달리스트를 나열하여 우
리도 메달을 어떻게 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바야흐로 9월이 시작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달음질을 시작할 때가 왔다. 이번
수요일부터 ‘12단계 성경공부 2단계’가 시작된다. 2
단계는 성경의 기초(Basics)에 대해서 공부한다. 방대
하고 이해하기 힘든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가르
쳐 주는 ‘성경을 읽는 방법’ (How to read the Bible)
과 성경의 구성과 의미, 성경의 주제, 성경의 중심 이
야기들, 성경의 주요 언어들, 성경의 역사적 배경, 성
경의 지리와 특성, 성경의 시간(절기), 성경의 문화 등
‘성경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서 3개월 동안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기초를 확
실히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사도바
울은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올림
픽에 출전한 선수가 상(메달)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달음질도 상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로서 하나님께 금메
달을 받도록 충성하자.

이강찬 목사



12 steps 성경공부 2 단계 :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 | |
|---------|--------------------------|
| 1. 개강일 | 수요반: 9월 3일 토요반: 9월 6일 |
| 2. 신청장소 | 교회 1층 로비 안내데스크(8.31 까지) |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단기선교 후기 3면

다문화 가정 4면

교회소식 4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 8



박원호 담임목사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8가지의 복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놓여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뉘어놓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할 때 비로소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유함입니다. 이는 신실함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신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의 으뜸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자하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축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이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어느 한 순간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는 일평생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음의 청결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현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입니다. “모든 과학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무한하신 분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이라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욥이 극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장에서 한

말입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한 번이라도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한번이라도 보게 되면 구체적이 됩니다. 나의 깊은 일부가 됩니다. 사람에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보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입니다. 이렇게도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답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한 마디 대답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와 마음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진정 기뻐하셨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기도하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되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충성하되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말씀을 대하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을 보시면 사람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관계이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도리어 모든 관계는 고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나를 너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물건으로 대해줄 때 나를 이용

하고 그러면서 나를 그것으로, 물건으로 대해줄 때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그러면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청결한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어쨌든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청결함입니까? 먼저 이 말은 더러움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더럽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먼저 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여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죄악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대한 역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하고 역한 모습을 힘들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청결은 빛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katharos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빛을 갠 줄으로써 이제는 빛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katharos라는 말은 모든 죄의식과 타락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청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배하는 자가 그 날에 온전한 제사를 준비해서 드릴 때에 이를 청결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이라는 말은 피가 순수하다, 종족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로 더럽히지 않는 마음, 죄로 섞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 된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

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 마음이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성령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이 마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알 뿐입니다.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팔복의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1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도 이 때문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것도,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내게 거룩한 소망이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힘있게 우리는 주관하시어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꼭 마음의 청결함을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함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함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기 전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청결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청결하게 보입니다. 자신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은 좀처럼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마음 속에 거짓과 속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 여름에 있었던 단기선교에 차분하고 진실되게 맡겨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성도님들의 선교후기를 모은 것입니다. 남은 후기는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편집부

“돌을 가르는 나무처럼...”



1. 살다보니 다른 분들의 기도응답이 되는 경험도..

저희 가정은 정신없는 직장생활 덕에 매년 휴가철만 되면 ‘방~콕’ 이나, 소박한 여행, 수련회 등으로 휴가를 대신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아내가 여름 단기선교봉사를 가보자고 제안해서 놀랐다. 아내와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아내 말을 들어서 아직까지 손해 본 적이 없었기에 군말 없이 따랐다. 떠밀려서 박지권 팀장집사님과 의료선교부 김학원 집사님을 찾아보니 마침 내과 의사 2명이 모자라서 애타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성령님은 과연 대한민국 마늘님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는다.

2.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 캄보디아로 배달되어 오다.

캄보디아에는 어린이들까지 에이즈 치료약을 먹고 사는 그들이 새삼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이 병들게 되는 것도 분명 타락의 결과이지만, 하나의 감염병이 개인의 죄에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사람들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킬링필드 이야기도 단지 공산당의 만행이라고만 배웠는데 실상을 보니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지식인들의 비뚤어진 이념적 실패였다는 것을 보았다. 엄격한 불교국가임에도 나라 전체는 교회의 도움을 환영하는 활기차고 개방적인 분위기였다. 그들은 가난하고 작은 나라지만 우리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원래 다민족 배경이 더 어울릴 것이므로 그들은 언젠가 한국교회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될 것 같다.

3. 심플라이프의 도전

우리가족은 과거 80년대 농촌 봉사를 떠올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단단히 포기를 하고 왔다. 나일론 신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오신 많은 분들은 어떠했겠는가? 다행히 교회에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사고 없이 참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다녀왔다. 다녀와서 몇 분 봉사자들이 탕기열, 장티푸스 등의 병으로 고생을 하시기는 했지만 은혜로 잘 회복하였다. 돌아오는 날 구경하였던 수상마을의 사람들은 전기도, 인터넷도 없는 배 위에서 편안하고 익숙하게 살고 있었다. 복음이란 그들의 그런 삶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전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4. 나는 과연 무엇을 주고는 왔을까?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는 현지에서도 내과, 소아과 진료와 외과, 비뇨기과의 눈부신 수술팀의 활약, 현지 크리스천 치과 의사의 합류로 우리는 아주 메디컬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환상적인 팀이었다. 아내와 함께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부족한 진료를 했지만 실통치 못한 약 몇 봉지 보다는 더 한 것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한다.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보니 그 엄청난 문화유산을 부수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로 틈새에서 자라나는 작은 나무들이었다. 나무들은 마치 수세기를 걸쳐서 계획을 한 듯 건물들을 가르고 있었다. 이번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돌을 가르는 나무처럼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다. 저희가족은 보잘 것 없는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많은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배집사님 그리고 탁월하신 선교사님들과 한 팀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태형 집사(83)

“기가막히게 좋은 여름휴가”



선교'라는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땀 흘리며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남쪽 더운 나라를 향하여 떠났는데 도착한 인도네시아 반둥이란 곳은 너무 선선하고 좋은 날씨에 밤에 잠 잘 때는 출기까지 했다.

몇 달 전부터 단기선교를 가기위해 머리 자르는(헤어컷) 방법을 배우며 열심히 연습했다. 이번 선교여행은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갖추고 간다는 것에 더 기쁘고 마음이 설레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교회에 이미용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드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나게 하시며 기꺼이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런데 그 훈련이 힘들지 않았고 오랜 시간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았으며 기쁘기까지 했다.

인도네시아 팀은 열 네 명의 그리 크지 않은 팀이었지만 의료팀원 5명 미용팀원 4명 목사님을 비롯한 예배팀 및 어린이 2명으로 그 구성이 매우 탄탄했다. 하루를 열고 닫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며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

사역 첫 날부터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반둥 현지인 교회에 가게 되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초대 받아 멋진 호텔에서 반둥 시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둥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히 믿음 허락해 주시길 기도했고 최고급 호텔 뷔페를 즐길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 있을 고된 사역을 미리 보상해 주시는 것 같다는 어느 분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봉사와 미용봉사가 이틀간 계속됐는데 모두들 모여든 인도네시아인들(약 4~500명)을 보며 잠시도 긴장을 멈추지 않고 쉬지도 못하면서 사역에 집중했다. 마음 속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의 손길을 거쳐 간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날이 어두워져서야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 기뻐서. 서로 쳐다보며 기쁜 얼굴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즐거웠던지!

이들의 사역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여건이 되면 더 할 수 있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마지막 날은 느긋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즐기며 우리에게 이런 귀한 휴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의 사역이 모두 잘 마무리 된 것은 떠오, 미리암 선교사님 내외분의 특별하신 배려 덕이었다. 두 분의 인도네시아 사랑과 열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아! 이런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인들도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인도네시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서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일에 더 헌신하고 쓰임 받고 싶다.

우리의 '기가 막히게 좋은 여름휴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보람도 있었으며 좋은 날씨 속에서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았다.

김영숙 권사 (6-5)





올림픽, 스포츠, 신앙

2008 베이징 올림픽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의 고진감래(苦盡甘來)에 가장 알맞는 지구촌의 축제였다. 9만명 관중을 수용하는 나오차오(새 둥지;鳥巢)에서의 웅장하고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은 인권부재의 거대한 정부권력에 무저항과 협조로 보답한 서민들의 애환이 만들어 낸 눈물겨운 드라마이다. 한국은 선수 267명이 참가하여 금 13개 은 10개 동 8개로 종합 7위를 달성하였다. 선진국 스포츠의 기초종목인 육상과 수영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육상은 고대국가에서 전투의 기본 기능이었다. 평화를 사랑하고 여유있는 행동을 강조하던 한국인이 육상을 못한다고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메달 숫자와 순위

보다 더 값지고 가슴 뭉클했던 것은 거기에 뻥 선수들의 땀과 눈물, 좌절을 이겨낸 인간 승리 드라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체중의 고행 길을 택한 장미란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은 일반인들은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동케 하였다. 모든 메달리스트들이 승리의 순간마다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현덕 장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희망하며



가족, 고향, 친구들을 떠나 말도 문화도 그리고 생김새조차도 생소한 이국 땅에서의 생활 이곳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 가족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주한 외국인 선교팀은 3회에 걸친 멘토링 세미나를 가졌다. 멘토링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이었으며 다문화 가정 사역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었는데 참석자가 많지 않았던 점은 아쉬

움으로 남는다. 이 세미나에 이어 주한 외국인 선교팀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엄마와 부인을 둔 다문화 가정과 7월 21일 자매결연을 맺고 이 가정들이 건강한 한국의 가정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한국 사람들끼리의 결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자랑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맺어진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의 새로운 새대를 양육하는 건강한 가정들로 우뚝 서기를 희망하며 우리의 노력이 아주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도한다.

움으로 남는다.

이 기회를 통해 주한 외국인 선교팀 팀원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주한 외국인 선교팀 팀원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임선주 집사 (1-13)

야구 결승전

허윤정



선수에게도 시청자에게도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자주 이러면 간이 작아질 것만 같아요..

© 2008 By Heo

함글함을 기자/기사모집

함글함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열정을 가진 교우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신형섭안수집사 (019.628.7957)

교회 소식

주방 및 로비확장 공사



7월 24일부터 3주간에 걸쳐 주방과 로비확장 공사를 하였다. 로비 확장 공사는 난방의 효율적 관리와 보다 넓은 공간활용을 위함이고 주방은 물을 많이 쓰는 특성상 논슬립 타일로 전면 교체하였다.

안전을 위해서 바닥 밑에 있던 배선을 천정으로 옮겨 설치하였으며 수도관과 배수관등을 벽속이나 바닥

밑으로 매설 처리하였다. 또한 여러 주방 기구들과 렌지와 소독기를 구입하였다. 9월 1일부터 5일간은 바닥재 교체 공사를 한다. 신형섭 기자

응급진료실 개원



응급진료실 개원 기념식이 8월 31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응급진료실은 급증하는 성도들의 주일 예배 전후에 발생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 중예배실 앞 로비공간의 일부를 막아 아름답게 꾸몄다.

응급진료실에 간단한 진료기기와 응급 의약품, 그리고 응급 처치세트 등을 상비하고 매주 오전9시부터 오

후1시까지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 소속 의료인들이 응급진료를 해드린다.

응급상황의 교우들을 치료해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치료받고 있는 질환으로 인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안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아 진료실로 내려오시면 된다.

김학원 안수집사(2-15)

이희아 연주회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 연주회로 드러졌다.

많은 교우들이 자녀들과 같이 참석

8월 13일 수요일 배는 장애인사역팀 주최로

을 하여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어머니의 간증의 시간도 가졌는데 남과 다르게 태어난 희아를 주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보이기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어린 생명을 보며 생긴 모습이 남들과 틀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두 개의 손가락만 있는 손을 바라볼 때 그 손이 튼튼처럼 이쁘게 보였다 한다.

갈라진 손가락으로 발도 없는 무릎만으로 폐달도 못 밟고 절망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과 감성으로 장애를 극복하였다 한다.

손가락 3개 없음을 원망하지 않고 두 개를 주심에 감사하며 낙천적인 성격에 피곤함도 없이 아이들과 만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연주회를 통해 장애인들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렸다.

신형섭 기자